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프랑스어 기후 담화 연구

- 명칭과 어휘 의미를 중심으로 -

Analyse de discours climatique français:
Dénomination et son sens lexical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불어학전공

김 호 원

프랑스어 기후 담화 연구

- 명칭과 어휘 의미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성 헌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불어학전공

김 호 원

김호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박 동 열 (인)

부위원장 최 윤 희 (인)

위 원 이 성 헌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이름(nom)의 변화 과정과 원인을 어휘 및 담화 차원에서 기술하고, 궁극적으로 담화에서의 어휘 의미가 언중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먼저, 명칭(dénomination)을 둘러싼 언어학적 논의를 검토하여, 하나의 지시대상에 이름이 부여되고, 그 이름이 언중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현한 사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사물에 대한 이름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으로까지 명칭 이론을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신조어(néologie) 연구들을 참조하여 하나의 이름이 명칭으로 자리잡아 수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기후 현상을 다룬 기사들로 르몽드 미디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말뭉치 내 기후 현상에 대한 여러 이름의 출현을 분석하였다. 앞서 유형화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프랑스 미디어에서 기후 현상을 가리키기 위해 어떠한 이름들이 새롭게 등장하여 수용되어 가는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기존의 두 이름들(changement climatique, réchauffement climatique)에 더불어, 새로운 이름들(dérèglement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 crise climatique)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이름들의 어휘 의미를 사전과 말뭉치를 바탕으로 규명하여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각 명칭들의 의미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기존의 이름이 가지지 못한 차별화된 의미들을

새로운 이름들이 어휘 의미로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새로운 의미에 대한 언중의 요구가 지시대상에 대한 재명명의 필요성으로 작용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주요어 : 미디어 담화, 담화 분석, 명칭, 기후 담화, 어휘 의미
학 번 : 2020-25616

목 차

서 론 ····· 1

본 론 ····· 3

제 1 장 이론적 배경 ····· 3

1.1. 이름의 생성과 변화의 기제 ····· 3

1.1.1. 랑그 차원의 이름 ····· 3

1.1.1.1. 명칭 이론의 출발점 ····· 4

1.1.1.2. 명칭과 지칭의 정의 ····· 5

1.1.1.3. 명칭의 전제: 사전 명명 행위 ····· 8

1.1.2. 담화 차원의 이름 ····· 10

1.1.2.1. 새로운 이름의 부여: 명명 ····· 10

1.1.2.2. 이름의 확산: 어휘화와 담화 기억 ····· 12

1.1.2.3. 명명의 대상 확장: 재명명 ····· 15

1.1.3. 어휘화의 지표: 신조어성과 양태화 ····· 18

1.1.4. 소결 ····· 21

1.2. 어휘의 의미 ····· 22

1.2.1. 의미의 이론적 정의: 표시 의미와 암시 의미 ····· 22

1.2.1.1. 표시 의미의 규명: 사전적 정의 ····· 23

1.2.1.2. 암시 의미의 규명: 말뭉치 내 공기 관계 ····· 23

제 2 장 기후 현상 명칭의 생성과 변화 기제 ····· 26

2.1. 기후 현상에 대한 이름 현황 ····· 26

2.2. 기후 현상의 명명 및 어휘화 ····· 31
2.2.1. Dérèglement climatique ····· 31
2.2.2. Urgence climatique ····· 36
2.2.3. Crise climatique ····· 41

제 3 장 기후 문제 명칭의 어휘 의미 ····· 47

3.1. 기존 명칭들의 어휘 의미 ····· 48
3.1.1. 표시 의미 ····· 48
3.1.1.1. Changement + climatique ····· 48
3.1.1.2. Réchauffement + climatique ····· 49
3.1.2. 암시 의미 ····· 51

3.2. 새로운 명칭들의 어휘 의미 ····· 54
3.2.1. 표시 의미 ····· 54
3.2.1.1. Dérèglement + climatique ····· 54
3.2.1.2. Urgence + climatique ····· 55
3.2.1.3. Crise + climatique ····· 55
3.2.2. 암시 의미 ····· 57
3.2.2.1. Dérèglement + climatique ····· 58
3.2.2.2. Urgence + climatique ····· 58
3.2.2.3. Crise + climatique ····· 60

결론 ····· 62

참고문헌 ····· 64
Résumé ····· 68

표 목 차

[표 1] 르몽드 표제 [N + climatique] 분포 (2021년) ····· 28
[표 2] 르몽드 내 “dérèglement climatique” 출현 분포 ··· 31
[표 3] 르몽드 내 “urgence climatique” 출현 분포 ····· 36
[표 4] 르몽드 내 “crise climatique” 출현 분포 ····· 41
[표 5] 기존 명칭들의 공기 술어 ····· 51
[표 6] 새로운 명칭들의 공기 술어 ····· 57

그 림 목 차

[그림 1] 르몽드 표제 [N + climatique] 분포 (2000-2021) 29
[그림 2] 르몽드 내 “dérèglement climatique” 출현 분포 32
[그림 3] 르몽드 내 “urgence climatique” 출현 분포 ····· 36
[그림 4] 르몽드 내 “crise climatique” 출현 분포 ····· 41

서 론

본 연구의 목표는 미디어에서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이름(nom)의 변화 과정과 원인을 어휘와 담화 차원에서 기술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담화에서의 어휘 의미가 언중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름의 문제는 Kleiber(1984:80)가 명칭(dénomin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처음 제시하였는데, 지시(référence)의 문제를 강한 지시 관계인 명칭과 약한 지시 관계인 지칭(désigna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구분은 영미권의 지시 관계에 대한 이론과 차별화된 지점[1]이며, 이후 어휘론과 화용론, 담화 분석 등 여러 언어학 분야에서 심도 있게 발전되어 왔다.[2]

명칭 이론은 언어규칙으로서 존재하는 랑그 차원에서 이름을 분석한 반면, Siblot(1997, 2001)의 연구에서는 이름의 문제를 개별 담화의 차원으로 확장시켜왔다. 그 결과, 화용론에서는 이름이 처음 부여되는 발화로부터 그 이름이 굳어진 명칭이 되어가는 과정까지 좀 더 폭넓게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담화 분석에서는 Moirand(2007), Moirand & Reboul-Touré(2015) 등의 연구들이 명명된 이름이 정착하여 확산되는 과정을 담화적 차원에서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왔다.

위의 연구들은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의 출현에 따른 이름 부여 현상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 적용 대상이 다소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새롭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이론의 확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언어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 반드시 새로운 지시대상의 출현은 아니며, 때로는 언중의 요구에 따라 이미 이름을 가진 사물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름을 둘러싼 기존의 제반 이론들이 이미 존재하는 지시대상에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현상 또한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

1) 영미식의 지시 관계 및 연어 관계와의 차이점은 Frath(2014) 참조.

2) § 1.1.2. 참조.

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름과 관련한 언어학적 개념들의 적용 대상을, 새롭게 출현한 사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재명명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ablayrolles(2000, 2007)의 신조어 연구를 참조하여 새로운 이름이 안정적인 명칭으로 정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할 것이다.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프랑스 미디어의 기후 담화에서 기후 현상에 대한 이름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프랑스 담화 분석의 흐름 속에서 미디어 담화의 명명은 중요성[3]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 기후 문제는 최근 프랑스 정치 및 미디어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재조명되고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이는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기후 담화에서 변화하고 있는 이름들을 추출한 이후에는, 각 이름들이 가지는 어휘 의미들을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이름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 차이를 수반하였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이를 통해 이름의 변화 이면에 존재하는 언중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름의 변화의 원인과 맥락 역시 규명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름 및 어휘 의미를 둘러싼 개념들을 살피는 것부터, 각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 분석에 활용하게 될 기준들을 정비하는 작업까지 포함된다. 2장에서는 르몽드 기사 말뭉치를 통해 프랑스 미디어에서 기후 변화를 둘러싼 이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출현 빈도에 대한 양적 분석 및 실제 출현 용례들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어떠한 이름들이 새롭게 출현하고 수용되어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각각의 이름들의 의미를 표시 의미와 암시 의미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이름들이 어떠한 의미 변화를 수반하며 출현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3) 미디어 담화가 수행하는 명명 행위에 대한 연구는 Calabrese Steimberg(2012) 참조.

본 론

제 1 장 이론적 배경

1장에서는 분석에 앞서 이름, 그리고 어휘 의미와 관련한 여러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1.1.에서는 어휘의미론에서 처음 정의된 명칭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화용론, 담화 분석에서 각각 이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신조어 연구를 참조하여 이름이 정착하여 수용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비할 것이다. 1.2.에서는 어휘 의미의 개념을 살피고, 이를 표시 의미와 암시 의미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이다.

1.1 이름의 생성과 변화의 기제

1.1.1. 랑그 차원의 이름

이름(nom)과 관련하여 TLFi 사전은 다음과 같이 의미를 제시한다.

> *Nom : Mot ou groupe de mots qui sert à désigner une réalité concrète ou abstraite*
> 이름: 구체적 혹은 추상적 실재를 지칭하는 데에 쓰이는 단어 혹은 단어 그룹

이름의 사전적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름의 문제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실재 사이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언어기호로서의 어휘와 현실 세계 속 사물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이름과 관련한 여러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한 Kleiber(1984)의 명칭 이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1.1. 명칭(Dénomination)[4] 이론의 출발점

명칭이라는 개념은 그 외연이 모호하였으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명사(nom)라는 문법적 범주와 이에 상응하는 지시적 범주 사이의 지칭적 관계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언어적 표현과 언어외적 개체 사이 존재하는 관계 전반을 말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서로 다른 정의들이 난립하였는데, 이 정의들 사이 존재하는 공통점은 바로 하나의 명사 혹은 이름(nom)[5]과 언어외적 사물(chose)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Kleiber(1984:77) 역시 이러한 관계를 출발점으로 삼아 명칭을 정의한다.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세계 속 사물 간의 관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는 명칭 외에도 지칭(Désignation), 지시(référence), 명명(nomination) 등이 있는데, Kleiber(1984:77-82)는 그 중 명칭과 지칭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명칭의 외연을 좁혀나간다.

명칭과 지칭의 구분은 영미권의 명칭 개념과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랑스 언어학계의 이름 논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영미권과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진 프랑스의 후속 연구에서 이름에 대한 이론적 연원으로 Kleiber(1984)의 연구가 자주 인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4) 일상 프랑스어에서 “dénomination”이라는 단어는 주어진 이름(nom attribué)을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명칭의 부여 행위(Action d’attribuer un nom), 즉 명명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다만, Kleiber(1984), Siblot(1997, 2001), Frath(2015)로 이어지는 언어학적 논의에서는 그 정의를 ‘주어진 이름’인 명칭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명칭을 부여하는 행위는 명명(nomination)이나 사전 명명 행위(Acte de dénomination préalable) 등 새로운 언어학적 개념으로 정의되기에, 본고에서는 “dénomination”의 번역어를 명칭으로 한정하고, ‘주어진 이름’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하고자 한다. § 1.1.2.1. 참조.

5) Kleiber(1984:81)는 프랑스어 어휘 nom이 명사(영어의 noun)에 해당할 수도, 이름(영어의 name)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다. 일상 언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가능하기에 두 가지를 병기하였으나, 언어학적 논의에서는 이름의 의미로 활용되는 경향이 크므로 이후 이름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 il s'est démarqué de ses prédécesseurs, mais aussi d'une conceptualisation telle qu'elle peut s'exprimer en anglais et dans l'espace anglo-saxon, en introduisant une distinction entre d'une part la dénomination (et le terme dénomination) et de l'autre la désignation (et le terme désignation) [...]
그가 이전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영어 및 영미권에서 일어나는 개념화와도 차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명칭(과 '명칭'이라는 용어)과 지칭(과 '지칭'이라는 용어)의 구분을 도입하면서이다. (Petit, 2012: 4)

1.1.1.2. 명칭과 지칭의 정의

명칭과 지칭은 하나의 기호와 지시대상 사이의 지시référence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Kleiber(1984:77)는 명칭, 지칭 그리고 지시의 발화가 모두 [기호(signe) X – 사물(chose) x]의 도식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각 발화들이 실현될 때에는 명칭, 지칭, 그리고 지시 관계에 대응하는 술어들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때, 명칭은 s'appeler, se nommer, être appelé, être le nom de라는 술어로, 지칭은 désigner, dénoter, représenter, référer à, renvoyer à라는 술어로 표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X – x]의 도식을 따르는 다음의 네 가지 발화를 살펴보자.[6)]

(1) Une petite mouche s'appelle MOUCHERON
MOUCHERON est le nom d'une petite mouche
작은 파리는 날파리라고 불린다
날파리는 작은 파리의 이름이다

(2) Le directeur d'école s'appelle BERNARD
BERNARD est le nom du directeur d'école
학교장은 베르나르라고 불린다

6) 1.1.1.2의 (1)-(11)은 Kleiber(1984)에서 제시한 예문들을 인용하였으며, 각 예문들에 대한 번역만을 필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베르나르는 학교장의 이름이다

(3) MOUCHERON désigne une petite mouche
MOUCHERON réfère à une petite mouche
날파리는 작은 파리를 지칭한다
날파리는 작은 파리를 지시한다

(4) BERNARD désigne le directeur d'école
BERNARD réfère à directeur d'école
베르나르는 학교장을 지칭한다
베르나르는 학교장을 지시한다

Kleiber(1984:77)에 따르면, 하나의 명사와 지시대상 간의 관계는 어떠한 서술어로 실현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과 (2)에서는 각각 '부르다(appeler)', '~의 이름이다(être le nom de)'라는 서술어를 통해 하나의 언어 기호가 하나의 사물에 대한 이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정의한 명칭의 서술어라는 점에서, (1)과 (2)는 명칭의 발화라고 볼 수 있다. 반면, (3)와 (4)의 두 발화는 '지칭하다(désigner)', '지시하다(référer à)'라는 서술어를 통해 언어 기호와 지시대상 간의 관계가 정립되었다. 따라서, 이 둘은 지칭의 발화에 해당한다.

명칭의 발화와 지칭의 발화는 모두 지시 동일성(identité référentielle)의 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본 네 가지 예문 (1)-(4)이 어색하지 않다면, 아래의 (5)-(6)의 예문들 역시 어색하지 않은 발화가 된다.

(5) Un moucheron est une petite mouche
날파리는 작은 파리이다.

(6) Bernard est le directeur d'école
베르나르는 학교장이다.

즉, 명칭의 발화가 가능하다면 지시 동일성의 발화 역시 가능하고, 지칭의 발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역시 지시 동일성의 발화가 가능하다. 결국, 날파리와 베르나르가 각각 명칭의 관계에 있든, 지칭의 관계에 있든, 일반적 지시 관계는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칭과 지칭을 동의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은 참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칭과 명칭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언어 기호 X와 사물 x 사이에 지시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명칭 관계와 지칭 관계 모두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아래 (7)-(9) 예문을 통해 확인된다.

(7) Le vainqueur d'Austerlitz est le vaincu de Waterloo
오스테를리츠의 정복자는 워털루의 패배자이다. (지시 동일성)

(8) LE VAINCU DE WATERLOO désigne le vainqueur d'Austerlitz
워털루의 패배자는 오스테를리츠의 정복자를 지칭한다. (지칭)

(9) ? Le vainqueur d'Austerlitz s'appelle LE VAINCU DE WATERLOO
? 오스테를리츠의 정복자는 워털루의 패배자라고 불린다. (명칭)

(7)을 통해 지시 동일성 관계가 제시된다면, 이를 통해 청자는 (8)이라는 지칭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반면, (7)을 통해 지시 동일성 관계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9)와 같은 명칭 관계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즉, '기호 X는 사물 x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는 곧 X를 통해 x를 지칭할 수 있음을 나타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X가 x의 이름, 즉 명칭이 되는 것이 아니다. X가 명칭이 되기 위해서는 지시 동일성 관계보다 더 안정적이고 공고한 관계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명칭과 지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1.1.1.3. 명칭의 전제: 사전 명명 행위

명칭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X->x]라는 관계를 미리 확립하는 사전 명명 행위(acte de dénomination préalable)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X가 x의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전제는 이전에 이미 X가 x의 이름으로 부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지칭 관계에서는 전제되지 않는다. X가 x의 명칭으로 사전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x를 X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발화가 그 예에 해당한다.

(10) L'insecte que je déteste le plus désigne une petite mouche.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곤충은 작은 파리를 지칭한다.
* L'INSECTE QUE JE DÉTESTE LE PLUS est le nom d'une petite mouche.
*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곤충은 작은 파리의 이름이다.

날파리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곤충'으로 지칭하는 것은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안정적인 관계가 사전에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곤충'이 파리이기만 하다면, 이 명사구로 작은 파리를 지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경우에 작은 파리의 이름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곤충'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작은 파리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곤충'이라고 불린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이름이 사전에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칭이 전제로 하는 사전 명명 행위는 (11)과 같은 형태를 띤다.

(11) a) On a appelé MOUCHERON une petite mouche
b) On a donné le nom de MOUCHERON aux petites mouches
c) Je l'ai appelé BERNARD
d) Mon père m'a donné le nom de BERNARD

e) J'ai été appelé BERNARD

사전 명명 행위는 그 이전의 발화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관습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위 발화들 중 (11a-b)는 일반적 관습에 따른 행위이며, (11c-e)는 이전 발화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날파리와 같은 일반명사는 사전 명명 행위를 담화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사람의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는 사전 명명 행위를 이전에 발생한 발화 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전 명명 행위는 기호 X와 사물 x 사이에 안정적인 지시 관계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 관계는 발화 순간에 한정된 일시적인 지시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지시 고정 규칙을 설정하는 행위이며, 이 규칙이 학습됨에 따라 이후에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기호 X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일반화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명칭 개념은 랑그 차원으로 설명된다. 하나의 명사가 지시대상에 대한 명칭으로 작용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어휘 차원의 규칙 속에 사전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설정은 사전 명명 행위라고 불리는 가상의 행위를 통해 발생한다. 물론, Kleiber(1984:79) 역시 이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발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급하고 있지만, 그 행위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보다는, 행위의 결과로서 지시 규칙과 명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중심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이어지는 여러 후속 연구들은 결과로서의 명칭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의 어휘를 명칭으로 자리잡게 하는 담화 차원의 명명 행위들에 주목하여 새로운 설명을 이끌어낸다.

1.1.2. 담화 차원의 이름

언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기호 체계이자 언어 규칙인 랑그 역시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주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에 의해 수정되고 변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름의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언어학계에서 여러 차례 존재했다. 그 결과, 새로운 이름의 부여와 수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존의 명칭 이론이 보완되고 확장되어 왔다. 이번 1.1.2장에서는 랑그가 아닌 담화의 영역에서 이름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1.2.1. 새로운 이름의 부여: 명명(nomination)

1.1.1에서 지시대상과 언어기호 사이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이 중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관계로서의 명칭을 정의하였다면, Siblot(1997, 2001)는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하였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 역시 언어로 발생하며, 이러한 행위가 실제적인 담화(discours effectif)로 이루어짐에 주목한 그는 이를 명명(nomin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Siblot(2001:1-7)는 명칭(dénomination), 지칭(désignation), 호명(appellation), 명명(nomination)의 개념들이 가진 일상적인 의미와 언어학적 의미를 모두 나열하고, 언어학적으로 각각의 외연을 획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네 가지 개념들은 모두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Kleiber(1974)가 명칭의 일상적 의미 중 명칭과 지칭을 구분해냈다면, Siblot(2001:6)는 여기에서 명명의 개념도 새롭게 구분해낸다.

먼저, dénomination에 대해 TLFi가 제시하는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Dénomination: A. - Rare. Action d'attribuer un nom.
B. - P. méton., cour. Nom attribué
A. - (드물게)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
B. - (환유적, 일반적) 부여된 이름

첫 번째 의미는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를 뜻하고, 두 번째 의미는 부여된 이름을 뜻한다. 행위로서의 의미가 먼저 기술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상으로도 이 의미가 자주 쓰이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부여된 이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Siblot(2001:6)는 명칭이라는 개념이 언어학적으로도 '부여된 이름'으로서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며, 결과적 가치를 분명히 가지는 용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름과 관련된 행위를 지칭하는 용법으로 명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사전적 정의에 언급되어 있지만 언어학적으로 부적합한 이 용법을 그는 명명이라는 개념에 새롭게 담게 된다.

명명은 이름과 관련된 담화적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명칭과 달리 과정적 가치를 가진다. 한편, Siblot(2001:6)는 명명에 두 가지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는 이름을 담화 속에서 실현하는 담화적 현동화(actualisation)의 용법이다. 즉, 이미 부여된 이름을 담화 속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명칭을 부여하는 제도적 행위, 일명 '세례 행위(acte de baptême)'라고 불리는 용법이다. 앞서 살펴본 이론에 비추어보면, 이 두 번째 용법이 발화로서 존재하는 사전 명명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 *Il apparaît conforme à la diachronie, à la morphologie, à la logique, aux pratiques langagières et aux fins théoriques, d'assigner à nomination le champ du discours, et à dénomination celui de la langue.*
> 명명을 담화의 영역으로, 명칭을 랑그의 영역으로 할당하는 것이 통시연구, 형태론, 논리학, 언어적 실천, 그리고 이론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Siblot, 2001: 7)

한편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Siblot(2001:12)는 사전 명명 행위에

해당하는 명명이 현실 속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논의를 이름의 사용, 즉 담화 속 현동화로 이끌고 있다. 그 역시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로 이루어진 명칭에 대해서는, 명명 행위를 관습의 차원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On relèvera que l'acte de baptême [...] ne vaut en réalité que pour les appellations définies (Npr de personnes, d'institutions, de marques, de bateaux, etc.) dont l'attribution fait l'objet de cérémonies.*
> *Dans le cas général des noms communs, il s'agit d'une « habitude associative » qui ne résulte pas d'un acte ritualisé[...].*
> 우리는 세례 행위가 사실은 의식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명명식(사람, 기관, 상표, 배 등의 고유 이름)에서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일반 명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상적 관습"에 의해 일어나며, 이는 의식에 의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Siblot, 2001: 12)

1.1.2.2. 이름의 확산: 어휘화와 담화 기억

Frath(2015:35)는 지칭, 명칭, 명명의 개념을 받아들이되 명명 이후의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앞선 두 주장과 마찬가지로, 명칭을 위해서 명명 행위가 전제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명명 행위가 명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Frath(2015:36)는 명명에서 출발하여 명칭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어휘화(lexicalisation)이라는 중간 단계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한 번의 발화를 통해 랑그 차원의 언어 규칙을 단숨에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칭과 명명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무언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명명 행위가 누적되고 언어 공동체에 의해 수용된다면, 어휘화 현상이 발생한다. 어휘화를 거친 이름은 명칭으로 이어질 수 있다.

> *La nomination est candidate à la lexicalisation, à devenir une dénomination.*
> 명명은 어휘화의 후보이며, 명칭이 될 수 있는 후보이다. (Frath, 2015: 39)

Moirand(2007b:1)에 따르면, 명명 시도들이 어휘화되어 명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프랑스 담화 분석(analyse du discours “à la française”, ADF)[7]에서는 기억(mémoir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프랑스 담화 분석은 1970년대에 정치 담화를 중심으로 발전된 이론으로 인지주의 패러다임[8]의 밖에서 형성되었는데, Michel Pêcheux의 기억과 망각 이론에서 출발하여 J.-J Courtine의 기억 개념으로 이어진다.

M. Pêcheux의 담화 의미론[9]에서는 ‘역사의 기억(mémoire de l’histoire)’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의미는 하나의 담화 내부에서 발화 주체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발화의 주체가 의미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라면, 그 의미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기억을 통해 이어진다. 즉, 이미 말해진 것(déjà-dit)이 계속해서 다시 말해지면서 일종의 상호담화성(interdiscours)이 형성되는 것이다.

J.-J. Courtine(1981:52)은 이 개념을 “담화 기억(mémoire discursive)”으로 재해석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담화 기억”은 심리언어학에서 말하는 기억작용과는 다른 것이다. 담화 기억 개념은 ‘발화의 역사적 존재(existence historique de l’énoncé)’와 관계된다. 즉, 하나의 담화가 발생한다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 담화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기억 역시 발생한다. 여러 담화들이 중첩되어 기억의 영역에서 하나의 연쇄를 이룬다면, 하나의 역사가 언어, 혹은 랑그 속에 기입된다. 모든 발화는 이미 말해진 것, 이미 발화된 것의 형태로 순환하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7) 프랑스 담화 분석(ADF)은 초기의 담화분석(AD)으로부터 출발하여 활발하게 이론을 발전시켜 온 프랑스 담화 분석 학파(école française d’analyse du discours)를 가리킨다. 이러한 학술적 흐름에 대한 논의는 Dufour et Rosier(2012)와 Raus(2019) 참조.

8) 기억(mémoire)이라는 개념은 Kintsch et van Dijk(1975) 등 심리언어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이들은 텍스트에 대한 기억 속에 내포된 인지적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는데, J.-J. Courtine(1981)은 이러한 인지주의 관점과 분명히 구분하고자 담화 기억(mémoire discursive)라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Moirand(2007b) 참조.

9) M. Pêcheux의 담화 의미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Maldidier(1993) 참조.

Pêcheux의 상호담화성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Moirand(2007b:5)은 이 담화 기억 개념을 재발견하여 “단어에 대한 기억(mémoire des mots)” 개념으로 발전시키며 ‘사물에 대한 기억(mémoire des choses)’으로부터 구분하였다. 즉, 담화의 연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은 발화 대상인 사물에 대한 기억, 혹은 발화 내용에 대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이 사물을 지칭하던 단어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억 속에서 중첩되는 담화들 간 상호담화성은 미디어 담화에서 중요하다. 미디어 담화는 본질적으로 발화자와 청자 간의 대인적 관계가 두드러지는 담화가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표상되는 여러 담화들 간의 관계가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기사가 제시되었을 때, 그 기사에는 이전에 존재했던 담화들이 “메아리”처럼 기능한다.

미디어에서 기자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일종의 범주화 행위가 된다. 사건의 명명과 지칭, 특징부여는 이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와 언어의 사용을 수반하고, 이 언어가 기억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바탕으로 범주화된다.

Moirand(2007b:6)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2005년 가을에 있었던 “교외 지역의 위기(la crise des banlieues)”와 2006년 겨울에서 봄까지 이어진 “CPE 위기”가 미디어에서 어떠한 명명을 통해 ‘위기’의 명칭을 획득하였는지에 주목한 바 있다. 2005년 소요는 초기에 긴장 상태(tensions), 소요(troubles), 사건(incidents), 대립(affrontements), 충돌(heurts) 등 수많은 이름으로 명명되던 것이 결국에는 위기(crise)라는 한 단어로, 2006년 소요는 분쟁(contestation), 집회(mobilisation), 운동(mouvement), 충돌(heurts) 등의 이름에서 결국 위기(crise)라는 한 단어로 명칭화되었다.

Moirand & Reboul-Touré(2015:106-107)는 사건에 대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명명 시도가 될 수 있으며, 이 이름들이 여러 미디어 담화에서 반복되어 사용되어 공동의 기억을 이룬다면, 어휘화된 명칭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명칭 속에 기입된 역사적 기억, 담화 기억은 지시대상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한정하기 때문이다.

1.1.2.3. 명명의 대상 확장: 재명명

앞선 살펴본 이론들에서 명명은 새로운 사물이 등장했을 때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명칭 이론에서 명명 혹은 사전 명명 행위의 대상은 세례행위가 발생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담화 분석 연구 역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명명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들에게 일상적 사물에 대한 일반명사는 중요한 명명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반면, Sablayrolles(2000, 2007)은 신조어 연구 속에서 명명의 대상을 한층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정리한 명명이 새롭게 명칭으로 자리잡는다면, 이는 사물을 지시하는 새로운 명사라는 점에서 하나의 신조어로 볼 수 있다.

Sablayrolles(2000:166)은 신조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 *On peut schématiquement distinguer [...] des néologismes ponctuels et des néologismes qui s'intègrent dans la langue. Cette dichotomie s'apparente [...] à celle établie entre les créations nécessaires, dénominatives, et les créations de luxe, dues à des soucis de style; celles-ci sont plutôt ponctuelles, celles-là plutôt durables.*
> 우리는 도식적으로 일시적인 신조어와 랑그에 기입되는 신조어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필연적이고 명칭적인 조어와 문체적으로 멋을 부린 신조어의 이분법과 유사한데, 후자는 보다 일시적이고 전자는 보다 지속적이다. (Sablayrolles, 2000: 166)

여기에서 제시된 일시적인 신조어는 앞선 명명·명칭 논의에서 이야기된, 어휘화되지 않은 명명 시도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고, 랑그에 기입되는 신조어는 어휘화에 성공한 명칭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명명에 그치는 일시적인 신조어는 hapax로 나타나며, 말뭉치에서 한두 번 등장하다가 다시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반면 어떠한 신조어들

은 계속해서 다시 활용되고 확산되면서 신조어성을 띠는 이름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름들이 충분히 오랜 기간 사용되며, 청중에게 익숙한 일상어가 된다면 신조어성을 잃고 랑그 속에 통합되어 정착한다.

Sablayrolles(2007)은 명명과 명칭, 신조어(néologie) 사이의 관계를 밝히며,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가능성들을 유형화하였다. 기본적으로 세계에 새로운 사물, 개념, 실재가 등장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신조어가 발생하며, 이는 가장 전형적인 신조어 연구의 대상이다. 그런데 Sablayrolles(2007)은 명명하지 않는 신조어, 신조어가 아닌 명명어, 그리고 기존의 지시대상에 대한 재명명어 역시 연구 대상으로 편입하며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 중 명칭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재명명(renomination) 현상이다. 세계 속에 새로운 관념 혹은 사물이 등장하였을 때, 이를 기술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때로는 객관적인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명명 현상이 발생한다. 즉, 이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에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 재세례(rebaptisation) 행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이름을 붙여야 하는 분명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 나타난다.

첫째는 다른 발명으로 인한 압박이다. 즉, 이름의 대상이 되는 사물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이와 혼동할 수 있는 새로운 사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새롭게 명명하는 경우이다. 전화기(téléphone)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전화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만 해도, 이를 지칭하기 위해 전화기(téléphone)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휴대전화(téléphone portable)라는 것이 새롭게 발명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전화기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 유선전화(téléphone fixe)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야 했다. 그 외에도 디지털 카메라의 발명 이후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은 필름카메라(appareil (photo) argentique), CD의 발명 이후 새

롭게 이름을 받은 레코드판(disque noirs) 등이 이러한 예시에 해당한다. 하나의 이름이 지칭할 수 있는 지시대상이 새롭게 등장해서, 혼동을 막기 위한 실용적인 필요성이 재명명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다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인데, 새로운 사유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이름을 다시 붙이는 경우이다. 즉, 지시대상이 되는 객관적 현실은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음에도, 기존 명칭이 가지고 있는 암시 의미를 고려하여, 사회는 현실에 더욱 알맞은 이름으로 재명명할 수 있다. 하녀(femmes/hommes de ménage)가 가사노동자(employés de maison) 또는 청소노동자(techniciens de surface)가 된 현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명명이 새로운 명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러 명명 시도들을 거쳐간다. 예컨대, 미혼모(fille mère)라는 표현이 조금 더 중립적인 비혼모(mère célibataire)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편모 가정(foyer monoparental)으로 이어지며 어휘 내부의 차별을 제거하는 과정은 꽤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많은 명명 실패 시도들을 거쳤다.

이처럼, 기존 세계에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도 언중의 필요가 있다면 명명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명명이 담화를 통해 이어지고 언어 공동체에 받아들여져 공동의 기억을 형성한다면, 새로운 명칭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3. 어휘화의 지표: 신조어성 상실과 인용 부호 탈락

이러한 이론들을 실제 담화 분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휘화 및 명칭의 지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Sablayrolles(2000:165-185)의 연구는 새로운 이름이 일상어로 자리잡는 과정을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조어성을 텍스트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준도 여러 가지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참조하여 어휘화의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것이다.

먼저 Sablayrolles(2000:166-182)은 객관적인 수치들부터 출발한다. 재사용되는 양상, 출현한 뒤 흐른 연수, 사전 등재성 등이 신조어성의 척도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하여 이를 한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재사용되는 횟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시 발화자와 청자의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재사용되었을 때의 새로운 청자로 연결되는 두 번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확산의 양태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산 양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횟수만을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절대적 시간의 척도로서 출현 뒤 약 10여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애 주기와 언중의 세대 교체, 사전의 출판 주기 등을 고려한 수치인데, 반드시 신조어의 주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사전 등재성은 어휘가 공인화되는 시기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에 등재되었다고 청중이 신조어성을 반드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 역시 객관적 어휘의 반영이 아니며 목적에 따라 기술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이론적 편의에 따른 조작적 정의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개념의 내재적 한계 및 한정적 연구 방법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시간에 따른 출현 빈도만을 객관적 지표로 채택할 것이다.

한편, 신조어성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신조어 느낌(sentiment néologique)이라는 주관적 지표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느낌들은 언중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상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Sablayrolles(2000:182-185)는 신조어 감정의 지

표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변동(flottement)의 존재이다. 다른 단어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그 단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 때 신조어적 감정이 야기된다. 위성 사진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image-satellite, image satellitaire, image satellitale이 경쟁 관계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지표는 새로운 어휘 옆에 동의어나 설명이 동격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12) *chanson polyphonisées, euh, polyphonées, enfin, mises à plusieurs voix* [10)]

위 예문에서는 polyphonées라는 신조어 어휘를 발화한 직후에, 이 어휘가 가지는 신조어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같은 의미를 가진 설명, *mise à plusieurs voix*를 동격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지표는 구두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르몽드 말뭉치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출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조어에 대해서는 인용부호(guillemet)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서 광우병이 처음 나타났을 때에도 *la maladie de la vache folle*이라는 용어는 항상 인용부호 속에 등장하였으며, 그 뒤에 과학적인 학명이 동격으로 뒤따랐다. “-gate”라는 명명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인용 부호 속에 나타났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신조어에서 벗어나 인용부호 없이 사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디어 담화에서 인용부호의 중요성은 Maingueneau(2016:183-190)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인용부호는 양태 부여 방식으로 활용되는데, 이는 자기지시적(autonymique) 양태화의 일환이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알리는 수단, 혹은 용어의 부적합함을 알리는 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기지시적 양태화의 경우 사물이나 실재가 아닌 단어에 대해

10) 르몽드 기사 내 출현한 용례이며, Sablayrolles(2000:183)에서 재인용하였다.

지칭할 때 인용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자기지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거나, 적당한거리를 두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인용 부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독자에게 달려있기에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신조어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들 외에도 두 가지 지표를 더 활용할 것이다.

첫 번째는 명시적 명명 발화의 흔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시대상에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기 위해서는 명명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명명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미디어에서 이름의 어휘화를 진행할 때, 그 이름의 출현 빈도수를 점차 높이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명명 담화들을 직접 출현시키며 이에 대한 담화 기억을 형성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명명의 술어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필 것이다.

두 번째는 기사의 헤드라인 분석이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미디어 담화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Charaudeau(1983:53)는 제목이 '그 담화의 효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시작(une ouverture vers tout ce qui peut rendre compte des effets de discours)'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신문 기사에서 제목은 새로운 정보를 알릴 뿐만 아니라, 기사로 이끄는 안내의 역할을 하고, 집약적으로 요약하여, 이것이 정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도록 한다. 특히 Irene Tamba(1992:37)는 [N: S1]의 형식으로 된 기사의 헤드라인에 대해, 앞에 오는 N은 여러 기간에 걸친 기사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부류(dossier)의 이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의 앞에 오는 N에 해당하는 이름은, 따라서 기자가 기사들의 묶음에 직접 붙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집약적이고 상징적인 명명을 기자 스스로 직접 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책임과 양태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발화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1.1.4. 소결

1.1.의 이론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속 사물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칭들은 언어규칙으로서 존재하는 랑그에 해당된다. 지칭과 달리 이 명칭들은 지시대상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한다. 명칭은 사전 명명 행위에 의해 주어지는데, 이는 주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고유명사에 관해서만 “세례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주어진 명칭 외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명명이라고 한다. 명명은 담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명명은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사회적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명명은 명칭이 될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명명 중 어휘화를 거친 일부 사례들만 명칭이 된다.

셋째, 새로운 이름의 어휘화는 담화 기억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명명하는 담화가 그 이후 새로운 담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담화들이 중첩되어 이름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형성한다면, 사회적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명칭이 되는 것이다.

넷째, 새로운 지시대상이 아닌 것에도 명명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도 언중의 필요에 따라 재명명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재명명의 원인이 되는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며, 새로운 이름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명칭으로 이어질 수 있다.

1.2 어휘의 의미

Sablayrolles(2007)은 이미 명칭을 가진 지시대상과 관련한 재명명이 발생하는 이유가, 기존 명칭이 어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담화적으로 가지는 암시 의미와 일치하지 않을 때, 사회적 인식을 보다 잘 반영하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새로운 사유 방식을 표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명명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번 1.2.에서는 어휘 의미에 대한 언어학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어휘 의미를 표시 의미 및 암시 의미로 구분하고, 각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1.2.1. 의미의 이론적 정의: 표시 의미와 암시 의미

하나의 어휘나 어휘군은 표시 의미(Dénotation)와 암시 의미(Connotation)를 가질 수 있다.[11] dénotation과 connotation은 어휘 의미론 외에도 언어철학, 논리학 등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어휘들에 대한 각 의미 분석을 하기 이전에, 표시 의미와 암시 의미에 대한 언어학적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Kerbrat-Orecchioni(1977:11-21)는 다음과 같이 이 두 용어에 대한 논리학 및 철학적 정의를 개괄하고, 이와 구별되는 언어학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논리학과 철학에서 dénotation(지시)은 외연(extension)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그 용어가 지시하는 모든 사물 혹은 개념들을 가리킨다. 반면 connotation(함의)은 이 사물이나 개념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가리키며, 결국 지시대상에 대한 이해(compréhension) 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철학적인 정의는 언어학적으로 외연(extension)과 내포(intension)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11) 각 개념에 대한 번역어는 강범모(2011)를 참조하였다.

J.S. Mill: "Le mot "blanc" dénote tous les objets blancs, comme la neige, le papier... et implique ou connote l'attribut blancheur"
J.S. Mill: "'하얗다'는 단어는 모든 하얀 사물들을 지시하며 여기에는 눈, 종이 등등이 속한다. 반면 이 단어는 하얀 속성을 함의로 가진다" (Kerbrat-Orecchioni, 1977: 12)

논리학의 함의(connotation)가 지시대상이 가지는 속성과 의미작용 전반을 가리킨다면, 언어학에서 말하는 표시 의미(dénotation)와 암시 의미(connotation)는 이 논리학적 함의 속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하나의 어휘 단위에 대해 표시 의미는 철저히 그 사전적 정의 속에 기입된 의미인 반면, 암시 의미는 그 외 추가적인 모든 속성들을 가리킨다.

표시 의미는 어휘의 정의상에 기입된 의미인 만큼, 랑그 차원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적 차원으로 부여되는 의미가 아니라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사회적 기호로서의 언어 속에 존재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암시 의미는 담화 차원에서 새롭게 획득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의미는 개별 담화 차원에서 실현되며, 때로는 맥락에 따라 그 의미의 실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1.2.1.1. 어휘 의미의 규명: 사전적 정의 속 의미 자질

어휘 의미의 경우 개별 담화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정의 속에 기입된 것이기 때문에 말뭉치에서 추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명칭들의 종합적 어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사전[12]에서의 정의를 종합할 것이며, 이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자질과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자질들을 전부 수집하여 어휘 의미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하도록 할 것이다.

1.2.1.2. 암시 의미의 규명: 말뭉치 내 공기관계

12) 의미 자질의 종합을 위해 다음의 사전들을 참고하였다: TLFi, LAROUSSE, Le Petit Robert.

암시 의미는 어휘 의미와 달리 사전적 정의로부터 추출할 수 없다. 앞서 암시 의미를 담화적으로 획득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암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어휘들의 출현 용례들을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말뭉치 내 출현(concordance)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 각 명칭들의 출현 용례들을 수집한 다음에 어휘의 암시 의미를 추출하는 작업은 보다 까다롭다. 어휘를 표제어로 분리하고 그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전 텍스트와 달리, 실제 담화에서 어휘는 다른 어휘들과 섞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의미작용 속 어휘가 가지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 포함될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휘들의 암시 의미를 선택 제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회적으로 규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명사 어휘는 일반적 문장에서 서술어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서술어가 한 명사 어휘를 자신의 논항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자신의 논항을 선택할 때에는 하위 범주화(Sous-Catégorisation)를 따르는데, 이 때 논항에 대한 통사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반면, 서술어와 논항 사이에는 의미적인 제약도 존재한다. 이를 선택제약(Restriction de Sélection)이라고 칭한다. 선택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통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문장도 의미적으로 비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서술어가 논항을 선택할 때, 자신의 논항에 특정 의미 자질을 선택 제약으로 부여한다.

우리가 살펴보는 명칭들은 모두 명사 어휘이기 때문에 명사를 논항으로 갖는 서술어와 결합할 것이며, 따라서 하위범주화는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선택 제약을 역으로 이용한다면, 서술어가 자신의 논항에게 요구하는 의미 자질들을 규명한 뒤, 그 논항으로 활용된 어휘의 의미를 추정해볼 수 있다.[13)]

이러한 방식으로 담화적으로 실현된 암시 의미들을 규명한 뒤에는, 이

13) G. Gross(1994) 참조.

것을 앞서 규명한 표시 의미와 비교해볼 것이다. 서술어가 논항에게 요구하는 의미 자질들이 어휘의 사전적 의미에 포함되는 자질들이라면, 이는 어휘 내부에 기입된 표시 의미의 실현이며 담화적으로 획득한 의미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 이 의미 자질들이 어휘 내부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의미들이라면, 담화적으로 실현된 암시 의미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기후 현상 명칭의 생성과 변화 기제

2장에서는 프랑스 미디어 담화 속 기후 현상[14]에 대한 이름들을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출하여, 어떠한 이름들에 대해 명명 시도가 존재하였으며, 그 중 어떠한 이름들이 명칭으로 자리잡아 수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2.1 기후 현상에 대한 이름 현황

먼저, 기후 문제를 지칭하는 이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기후 문제에 대한 지칭어를 살피는 작업은 공기관계를 활용할 것이다. 그동안 이미 일상어처럼 사용되던 지구온난화(réchauffement climatique)나 기후 변화(changement climatique)의 경우 공통적으로 [N + climatique]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핵심이 되는 어휘는 형용사인 climatique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랑스어 형용사는 명사의 뒤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말뭉치 속 모든 [N + climatique]를 추출하고, 공기어 N의 빈도수와 분포를 살펴볼 것이다.

공기어를 살피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 통시적 방법과 공시적 방법으로 수행할 것이다. 첫 번째인 공시적 방법은 2021년 르몽드에서 게재된 모든 기사들을 수집하여 '르몽드 기사 전문 말뭉치(2021)'[15]를 구축하였다. 구

14) 흔히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시대상을 '기후 현상'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칭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등의 용어 자체가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되는 만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말뭉치에서 등장하지 않는 '기후 현상'으로 용어를 통일할 것이다.

15) 말뭉치의 구축을 위하여 르몽드의 공식 홈페이지(www.lemonde.fr)에서 기사를 직접 수집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으며, 수집 방식의 한계로 인해 구독자만을 위한 기사(réservé aux abonnés)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사들만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4,768개의 기사들이 수집되었으며, 8,222,467어절로 이루어진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축된 말뭉치 속 기사 전문에서 climatique의 공기어들을 수집[16]하여, 가장 유의미하게 자주 출현하는 명사들을 수집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현재 기후 문제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무엇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인 통시적 방법을 위해서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르몽드에 게재된 모든 기사들의 표제를 수집하여 '르몽드 표제 말뭉치(1990-2021)[17]'를 구축하였다. 그 표제들에서 climatique의 공기어들을 수집하고, 가장 유의미하게 자주 출현하는 명사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신문 기사의 가장 상징적인 헤드라인에 어떠한 이름으로 기후 문제가 지칭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르몽드 표제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6) 말뭉치 내 공기어 추출을 위해서는 UNITEX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UNITEX 내에 내장된 프랑스어 사전을 활용하여 [N + climatique]의 도식에 부합하는 공기 어휘를 추출하였다. UNITEX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남지순(2013) 참조.

17) 해당 말뭉치는, 뒤이어 수행될 3장의 공기 관계 분석과 달리, 이름들의 사용 현황만을 개괄ㅈ거으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인 만큼,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을 위해 수집 대상을 표제로 한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9,126,342어절로 된 표제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Rank	공기어	절대빈도
1	changement	398
2	réchauffement	230
3	dérèglement	93
4	crise	51
5	urgence	50
6	action	16
7	justice	14
8	ISF (impôt sur la fortune)	10
9	catastrophe	10
10	politique	9

[표 1] 르몽드 표제 [N + climatique] 분포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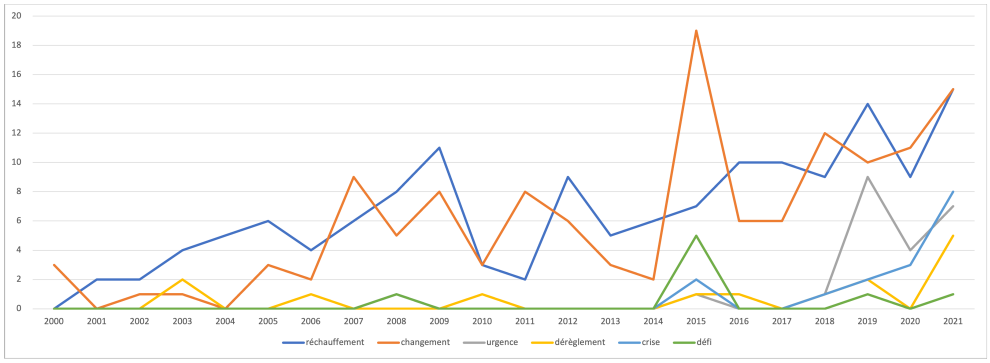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이다. changement climatique와 réchauffement climatique, 두 가지 용어가 기후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한편,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dérèglement climatique, crise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는 그 아래 다른 어휘들과는 구분될 정도로 유의미하게 많은 빈도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실제 사용되는 구문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changement climatique나 réchauffement climatique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계열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La Grande Nuit renvoie aussi à nos angoisses face à/au/à l' (changement + réchauffement + crise + **urgence** + dérèglement) climatique.*[18)]

18) "Laura Nsafou : « Comment garder l'espoir quand il disparaît brutalement ? »", 2021년 10월 17일, Le Monde.

한편 다른 어휘들의 경우, 그 빈도수가 현저히 낮았음은 물론이고 [N + climatique]가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하나의 명사구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changement climatique, réchauffement climatique, dérèglement climatique, crise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의 다섯 개 용어들만이 현재 기후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다.

통시적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모든 신문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수집한 말뭉치에 대한 분석 결과도 유사하다. 다음은 같은 방식으로 climatique와 함께 자주 결합하는 명사들의 연도별 헤드라인 분포도이다.



[그림 1] 르몽드 표제 [N + climatique] 분포 (2000-2021)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실은 2000년부터 réchauffement climatique와 changement climatique가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용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두 이름이 기존에 기후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약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리고 새로운 경쟁 어휘들이 등장했음에도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빈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기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2021년도 말뭉치를 통해 알 수 있었듯, urgence climatique, dérèglement climatique, crise climatique가 높은 빈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défi climatique도 헤드라인에서 상위 빈도에

발견되었는데, 특히 2015년도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1년도 말뭉치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년에 명명되었으나, 그것이 명칭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désordre climatique, fluctuation climatique 등, 명칭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몇 차례 명명되고 사라지는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2015년도에 많은 지칭어들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된 특이점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는 2015년이 파리협정이 체결된 COP21이 있었던 해이며, 기후에 대한 담화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였다는 점의 영향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2.2. 기후 현상의 명명 및 어휘화

두 말뭉치를 통해 기후 현상을 지칭하는 다섯 가지 이름을 추출할 수 있었다. 2.2.에서는 앞서 추출한 새로운 이름들인 dérèglement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 crise climatique가 등장한 모든 기사들을 수집하여 새로운 세 개의 말뭉치를 구축[19]하고, 각 이름들의 출현 및 확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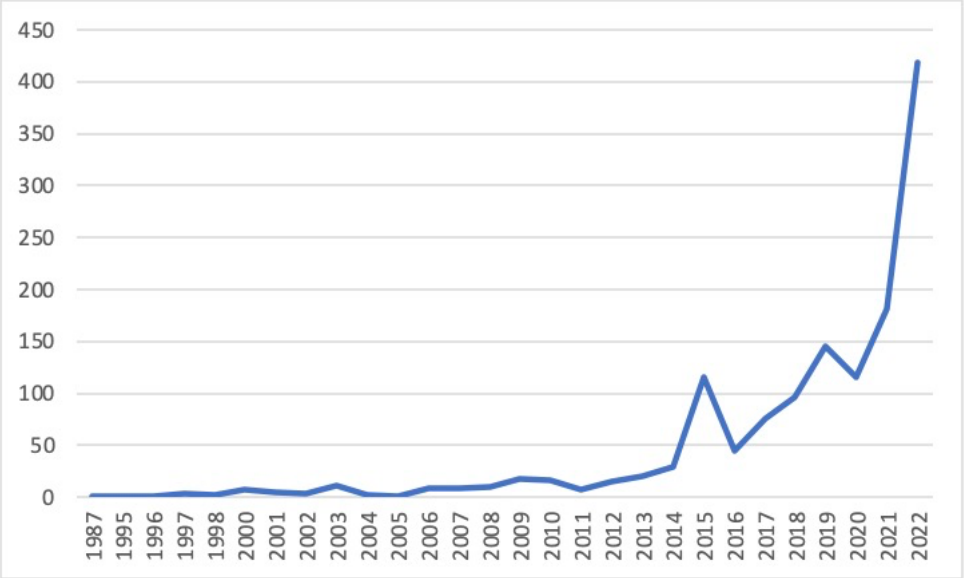
2.2.1. Dérèglement climatique

Dérèglement climatique가 출현하는 르몽드의 모든 기사들을 추출해 본 결과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총 1,357개 기사에 출현하였으며, 한 기사에 여러 차례 출현한 것까지 포함하여, 르몽드 기사 전체에 이 이름이 등장한 횟수는 총 1,464회이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현기사수	7	4	3	11	2	1	8	9	10	18	16	7	15	20	29	115	44	75	96	145	115	181	418

[표 2] 르몽드 내 “dérèglement climatique” 출현 분포

19) 이 말뭉치에서는 각각의 이름이 등장하는 www.lemonde.fr 홈페이지 상의 모든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본문까지 포함되며, 구독자만을 위한 기사들 역시 포함하여 수집하였다. 그 결과, dérèglement climatique의 경우, 1,239,280어절로 구성된 말뭉치가, urgence climatique의 경우, 767,321어절로 구성된 말뭉치가, crise climatique의 경우 706,721어절로 구성된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그림 2] 르몽드 내 “dérèglement climatique” 출현 분포

Dérèglement climatique는 앞서 본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 출현 빈도가 100회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매우 높은 빈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dérèglement climatique가 대략 2020년부터 기후 현상의 명칭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지표는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Dérèglement climatique가 르몽드 기사에서 가장 처음 출현한 것은 1987년도 기사이며, 에티오피아의 가뭄과 관련된 보도에서 등장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dérèglement climatique가 2015년 이전, 즉 활용 빈도가 높지 않던 시기에도 신조어성의 표지를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4) *Mais, après un* ***dérèglement climatique***[20] *pourtant prévisible parce que cyclique, la survie de millions d'Ethiopiens repose toujours sur l'aide extérieure.*[21]

20) 본 논문에 포함된 기사 예문 내 이름들의 강조 표시는 가독성을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임을 밝힌다.

이처럼 1987년 첫 출현부터 dérèglement climatique는 인용부호 없이 기자의 말로 등장하였다. 이는 기자가 이 명칭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책임을 완화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이름으로 가리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중에게 새롭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고려 및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Dérèglement climatique가 인용 부호 속에서 등장한 것은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9년, 총 3회이다.

(15) *Le projet de loi est « à la fois réaliste et ambitieux », a déclaré Mme Pompili, évoquant des réponses « concrètes » aux cinq principaux facteurs de perte de biodiversité : « artificialisation des terres », « surexploitation des ressources », « pollutions », « apparition d'espèces invasives » et « **dérèglement climatique** ».*[22]

그 중 2016년도에 등장한 위 용례는 법률안에 등장한 다섯 가지 요인들을 열거한다는 점에서 기후 현상 자체를 지시하기보다는,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법률 조항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텍스트에 대한 자기지시적(autonymique) 용법으로 볼 수 있다.

(16) *Enfin, pourquoi avoir préféré l'expression « changement climatique » à celle de « réchauffement climatique » ou de « **dérèglement climatique** », employées par la grande majorité des scientifiques» ?*[23]

---

21) "Six millions de personnes menacées par la sécheresse Nouvelle alerte en Ethiopie", 1987년 9월 25일, Le Monde.

22) "Retour du principe de pollueur-payeur dans la loi sur la biodiversité", 2016년 3월 16일, Le Monde.

23) "Le nouvel art de la guerre (et de la paix)", 2017년 10월 12일, Le Monde

2017년에 등장한 위 용례는 보다 더 분명하게 자기지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전 표제어로서의 dérèglement climatique라는 언어 표현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인용 부호의 자기지시적 표현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7) *La sécheresse exceptionnelle de l'île est aussi pointée du doigt par la préfète, comme signe d'un « dérèglement climatique ».*[24)]

결과적으로 양태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인용부호의 활용은 위 2019년 2월의 용례 하나이다. 이는 2019년 2월 코르스 섬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한 기사로, 기사의 전체에 걸쳐 화재의 원인으로 화전(écobuage)과 같은 인간에 의한 요인들이 제시된 데에 반해, 그 외에 소수 의견으로 기후적 문제도 있음을 언급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밖에 말뭉치 내에 인용부호의 활용 외에 환언문 및 설명의 동격 제시나 명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용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2021년부터는 표제에서도 자연스럽게 [N:SN]의 Dossier 이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다.

(18) *Dérèglement climatique : l'humanité à l'aube de retombées cataclysmiques, alerte un projet de rapport du GIEC*[25)]

(19) *Dérèglement climatique : le Royaume-Uni risque des étés à plus de 40°, même avec un réchauffement limité à 1,5°*[26)]

---

24) "Corse : des feux stabilisés, les pompiers encore mobilisés", 2019년 2월 25일, Le Monde.

25) "Dérèglement climatique : l'humanité à l'aube de retombées cataclysmiques, alerte un projet de rapport du GIEC", 2021년 6월 23일, Le Monde.

26) "Dérèglement climatique : le Royaume-Uni risque des étés à plus de 40°,

(20) *Dérèglement climatique : le coût de l'adaptation pour la France évalué pour la première fois*[27)]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dérèglement climatique는 réchauffement climatique나 changement climatique에 비해 출현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독자에게 주는 신조어성은 적으며, 따라서 큰 거부감 없이 명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3장의 의미 분석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다.

---

même avec un réchauffement limité à 1,5 °" 2021년 7월 29일, Le Mo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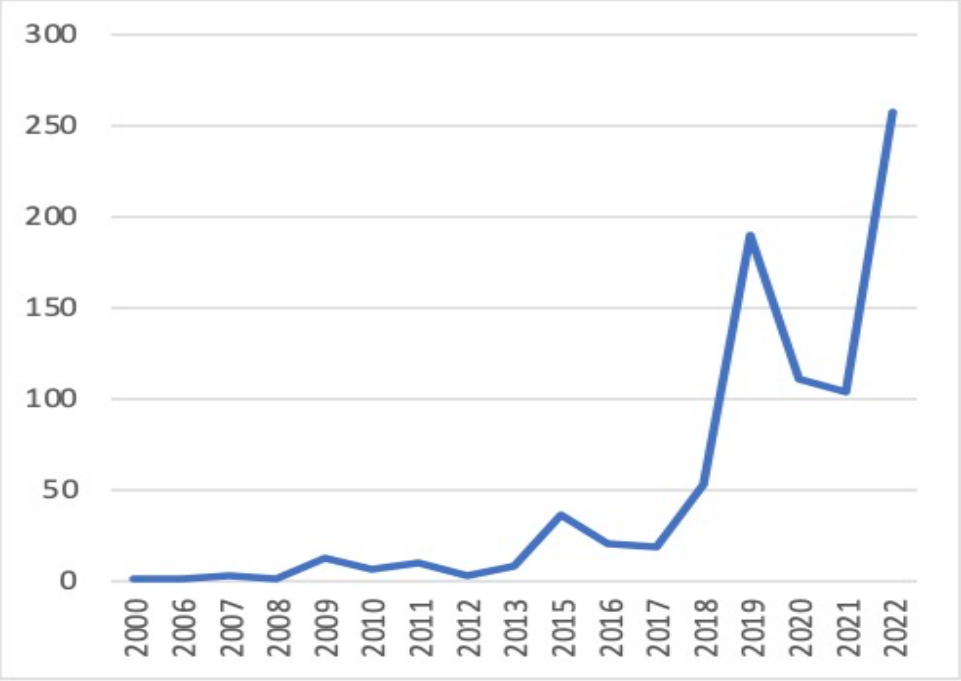
27) "Dérèglement climatique : le coût de l'adaptation pour la France évalué pour la première fois", 2022년 6월 23일, Le Monde.

2.2.2. Urgence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가 출현하는 르몽드의 모든 기사들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다. urgence climatique는 총 835개 기사에 출현하였으며, 한 기사에 여러 차례 출현한 것까지 포함하여, 르몽드 기사 전체에 등장한 횟수는 총 840회이다. 연도별 출현 빈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합계
출현기사수	1	1	3	1	12	6	10	3	8	36	20	19	53	190	111	104	257	835

[표 3] 르몽드 내 “urgence climatique” 출현 기사 분포



[그림 3] 르몽드 내 “urgence climatique” 출현 분포

위 그래프를 보면, 2015년도에 urgence climatique의 출현 빈도가 소폭 상승했다가,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출현 빈도가 거의 200회에 달할 정도로 증가한다. 그 이후 100회 이상의 빈도수를 유지하다가 2022년도에 250회 이상 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urgence climatique는 2019년도부터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지표는 관측된다고 볼 수 있다.

Urgence climatique가 가장 처음 르몽드 기사에 등장한 것은 세 이름들 중 가장 늦은 2000년이며, 녹색당과 그린피스의 발화를 인용한 것에서 등장하였다.

(21) *« Quelques semaines seulement après des tempêtes qui ont confirmé l'hypothèse de perturbations climatiques liées aux activités humaines, le gouvernement ne semble pas décidé à présenter un plan à la mesure des enjeux et de l'**urgence climatique** », déclare l'organisation écologique.*[28]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 등장하는 2006년 기사에서 urgence climatique가 단독으로 헤드라인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22) ***Urgence climatique***[29]

그 이후에도 2011년, 2015년 등 초반부터 인용부호 없이 헤드라인에서 쓰였다는 점 역시 이 용어 자체가 신조어성을 덜 가진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23) *Malgré l'**urgence climatique**, les discussions piétinent à Durban*[30]

28) “Les Verts et Greenpeace sont déçus”, 2000년 1월 20일, Le Monde.

29) “urgence climatique”, 2006년 10월 12일, Le Monde.

30) “Malgré l'urgence climatique, les discussions piétinent à Durban”, 2011년 12월 8일, Le Monde.

(24) *Vanuatu, symbole de l'**urgence climatique***[31)]

반면, 헤드라인이 아닌 본문에서의 출현 예들에서 인용부호의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urgence climatique가 인용부호와 함께 등장한 것은 총 32건에 달한다. 이 중 빈도수가 적었던 2015년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인용부호를 통한 양태화가 드러난다.

(25) *Le chef de l'Etat veut convaincre les Français, face à l'"**urgence climatique**", de la nécessité de changer de comportement, de trouver "les chemins d'une croissance plus juste".*[32)33)]

다만, urgence climatique의 경우, dérèglement climatique와 달리, 인용 부호를 통한 양태화가 2019년 이후에도 종종 발생한다.

(26) *Il a toutefois ajouté qu'il fallait faire davantage pour affronter « l'**urgence climatique** », évoquant l'interdiction progressive des voitures à essence et diesel.* [34)]

Urgence climatique가 포함된 헤드라인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urgence climatique가 인용부호를 통해 양태화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즉 법률 담화에 대한 지시일 경우였다.

---

31) “Vanuatu, symbole de l'urgence climatique”, 2019년 8월 19일, Le Monde.

32) “L'Elysée parie sur une taxe carbone fiscalement neutre mais efficace”, 2009년 9월 10일, Le Monde.

33) 르몽드 기사의 게재 일자에 따라, 영미식 인용부호인 따옴표 형태(“ ”)와 프랑스식 인용부호(guillemet, « »)가 혼용되어 나타난다. 예문들의 인용부호는 원문에 충실하여 제시하였다.

34) “La mobilité mérite mieux que les gadgets de start-up et autres légendes technologiques”, 2019년 5월 3일, Le Monde.

Urgence climatique는 다른 명칭들과 달리 긴급사태État d'urgence climatique라는 법률적 의미를 부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항상 인용부호를 수반하여 등장하였다.

(27) *L'Irlande déclare à son tour « l'urgence climatique », dix jours après le Parlement britannique*[35)]

(28) *Le Parlement adopte définitivement le projet de loi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qui décrète « l'urgence climatique »*[36)]

또한 dérèglement climatique와 마찬가지로 2018년 말부터 헤드라인에 [N:SN]의 형태로 출현하며 Dossier의 이름 역할로 제시되고 있다.

(29) *Urgence climatique : les politiques sont-ils irresponsables ?*[37)]

(30) *Urgence climatique : faut-il instaurer une dictature environnementale ? Un débat du Monde Festival Montréal*[38)]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urgence climatique는 다른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부터 높은 출현 빈도로 등장하여 기후 현상을 지칭하고 있다. 기사의 헤드라인에서는 [N:SN]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인용부호 없이 나타나는 등 어휘화의 표지를 보이고 있으나, 본문에서

35) "L'Irlande déclare à son tour « l'urgence climatique », dix jours après le Parlement britannique", 2019년 5월 10일, Le Monde.

36) "Le Parlement adopte définitivement le projet de loi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qui décrète « l'urgence climatique »", 2019년 9월 27일, Le Monde.

37) "Urgence climatique : les politiques sont-ils irresponsables ?", 2018년 10월 29일, Le Monde.

38) "Urgence climatique : faut-il instaurer une dictature environnementale ? Un débat du Monde Festival Montréal", 2019년 10월 27일, Le Mo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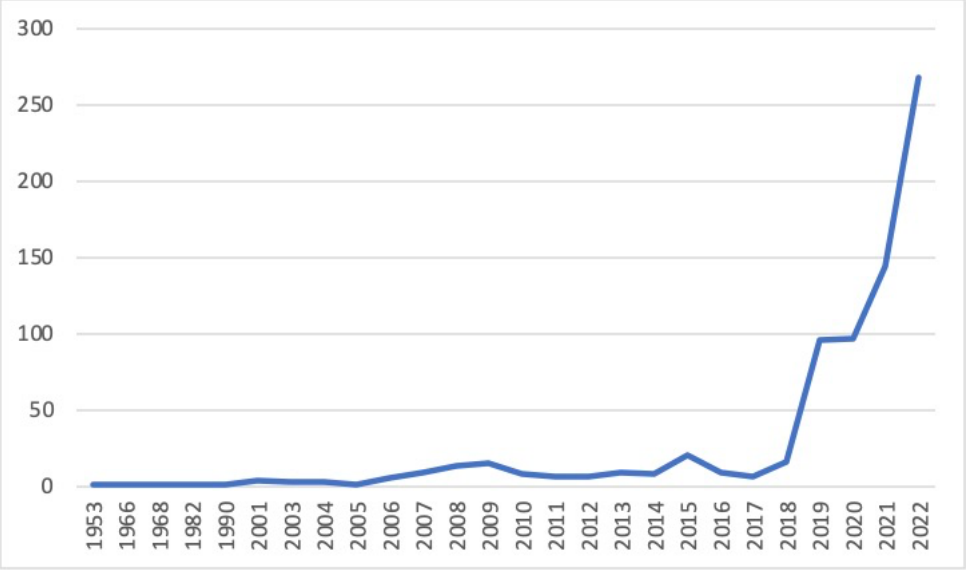
는 인용부호로 양태화되는 양상도 종종 보인다. 특히, 법률 담화를 상기시키는 기사들이 2019년부터 자주 출현하며, 이 때 양태화되는 양상이 높게 드러나므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2.2.3. Crise climatique

Crise climatique가 출현하는 르몽드의 모든 기사들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총 751개 기사에 출현하였으며, 한 기사에 여러 차례 출현한 것까지 포함하여, 르몽드 기사 전체에 등장한 횟수는 총 798회이다.

연도	1953	1966	1968	1982	199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합계
출현기사수	1	1	1	1	1	4	3	3	1	5	9	13	15	8	6	6	9	8	20	9	6	16	96	97	144	268	751

[표 4] 르몽드 내 “crise climatique” 출현 분포



[그림 4] 르몽드 내 “crise climatique” 출현 분포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절대적 빈도수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18년까지는 1년에 20회를 넘지 못하던 출현 횟수가 갑작스럽게 2018년 1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이 용어의 출현 빈도가 거의 100회에 다다랐으며, 이 숫자는 2021년과 2022년, 큰 폭으로 다시 한 번 상승하였다. 따라서 2018년 말 혹은 2019년도부터 명칭으로 자리잡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확보된다.

Crise climatiqu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53년이며, 1966년, 1968년, 그리고 1982년까지 네 개의 기사에서 총 다섯 차례 출현하는데, 이 때 crise climatique는 기후 위기라는 뜻의 용어가 아닌, (고도) 순응 장애(Maladie d'Acclimatement/Acclimatation)의 동의어로서 의학 용어로 사용되게 된다.

(31) *C'est la "crise climatique", à laquelle fait suite l'"acclimatation" proprement dits, qui se traduit par un retour au bien-être et aux possibilités physiques.*[39)]

우리의 관심대상이 되는, 기후 현상을 지칭하는 crise climatique가 사용된 첫 용례는 1990년 기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0년 이후로는 이 용어가 기후와 환경 관련한 기사에서만 등장하며, 기후 변화를 지칭하는 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Une **crise climatique** est prévisible : "Des arguments scientifiques solides, sinon tout à fait précis, nous avertissent [d']une évolution relativement rapide du climat pour toutes les régions de la Terre, d'une ampleur inégalée dans un intervalle de temps aussi bref [...] Les problèmes causés par ce phénomène ne seront pas insurmontables."*[40)]

39) "Les dangers des sports de combat et de l'entraînement en altitude", 1966년 11월 1일, Le Monde.

그 다음 출현 기사인 2001년 1월 3일 기사부터, 2018년 말 직전까지는 crise climatique로의 명명 시도들이 발견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이 용어에 대한 명명적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crise climatique는 인용 부호를 통한 양태화 표지가 시기적으로 가장 잘 구분되는 명칭이다. 인용 부호를 통한 거리 두기는 2004년부터 2006년의 기사들에서만 살펴볼 수 있다.

(33) *[...] face aux parlementaires, le ministre de la santé a martelé qu'il n'avait "jamais rien su" de la gravité de la situation, n'évoquant qu'une "**crise climatique**" et non sanitaire*[41)]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crise climatique로 명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appeler 동사와 함께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자가 crise climatique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명 행위자에게 돌리는 것임과 동시에, 아직 이 용어가 명칭으로 자리잡지 않고, 특정 발화자에 의해서만 명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에는 당시 프랑스 보건부 장관 Jean-François Mattei, 그리고 2006년에는 미국 전 부통령 Al Gore에 의해서 기후 현상이 crise climatique로 명명되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34) *Le bilan tiré de ce que le ministre de la santé, Jean-François Mattei, continue d'**appeler "une crise climatique**" nous renseigne sur la manière dont les politiques, prompts à se renvoyer à la figure leurs fautes mutuelles, se font plus discrets quand il s'agit de*

40) ""Gros temps sur la planète", de J.-C. Duplessy et P. Morel Péril ambiant", 1990년 2월 7일, Le Monde.

41) "Canicule: le rapport accusateur qui ménage M. Mattei", 2004년 2월 26일. Le Monde.

reconnaître leurs propres torts.[42)]

(35) *[...] mettre le poids d'une incontestable crédibilité politique dans l'expression d'un message clair, à savoir l'urgence et la gravité de ce qu'il[Al Gore]* ***appelle "la crise climatique"***[43)]

셋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이 동격으로 배치되는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2006년도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crise climatique가 '견디기 힘들어질 정도로 지속되는 온난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부연되고 있다.

(36) *[...] les spécialistes attribuent aujourd'hui à la combinaison d'**une crise climatique - un réchauffement continu qui serait devenu insupportable -** et d'un bouleversement géologique et volcanique intense [...]*[44)]

위의 세 가지 지표들을 통해 2000년대에는 crise climatique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지만,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주요 인물들에 의해 계속해서 명명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담화 기억을 형성하는 발화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미디어 담화는 이를 소개하되 거리를 두며 책임을 완화하려는 모습들이 텍스트 곳곳에서 발견된다.

반면 2018년 말 이후부터는 crise climatique라는 이름이 명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발견된다.

우선, 2010년대부터는 crise climatique가 더 이상 양태화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crise climatique는 appeler 동사와 함께 누군가에 의해 명명되었다는 사실로 제시되지 않고, 인용부호

42) "On aurait aimé", 2004년 2월 27일. Le Monde.

43) urgence climatique", 2006년 10월 12일. Le Monde.

44) "Le mystère du permien a peut-être sa solution au Niger", 2006년 12월 20일, Le Monde.

없이 기자의 말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다른 명칭들과 마찬가지로 출현 빈도가 높아진 2019년도부터 [N:S1]의 형식으로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37) ***Crise climatique**: Extinction Rebellion bloque des lieux emblématiques de Londre*[45)]

(38) ***Crise climatique**: l'appel de 11 000 scientifiques pour éviter des "souffrance indescriptible"*[46)]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헤드라인에 계속해서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 crise climatique라는 이름이 일상적 명칭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한 시점은 2018년 12월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달에 1회 이상 출현하지 않던 용어가 2018년 12월 갑작스럽게 9회 출현한 이후 꾸준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2018년 12월에 crise climatique에 대한 중요한 명명 사건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12월의 crise climatique 출현 중, 이 문제의 명명을 다룬 발화는 아래 그레타 툰버그Greta Thunberg의 발화라고 볼 수 있다. 그레타 툰버그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39) *Présente à la COP24, la jeune fille expliquait : « A partir du moment où nos dirigeants, les médias et la société commenceront à traiter la crise climatique comme la crise qu'elle est vraiment, nous n'aurons plus besoin de conférences mondiales. »*[47)]

---

45) "Crise climatique: Extinction Rebellion bloque des lieux emblématiques de Londre", 2019년 4월 16일, Le Monde.

46) "Crise climatique: l'appel de 11 000 scientifiques pour éviter des "souffrance indescriptible"", 2019년 11월 7일, Le Monde.

47) "Les Etats pusillanimes face à l'urgence climatique", 2018년 12월 17일, Le

위 발화는 단순히 기후 문제를 기후 위기로 명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적 명명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라는 이름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발화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어지는 2019년의 기사들에서 그레타 툰버그가 높은 빈도로 인용되고 있으며, 툰버그의 담화가 crise climatique에 대한 담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48)]

결론적으로, crise climatique는 2004년과 2006년, 2018년의 명명 시도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름이었으며, 이러한 명명 시도들이 어휘에 대한 공동체적 기억을 형성하여 어휘화되었고, 명명의 당위성이 언중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점차 명칭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Monde

48) 실제로 그레타 툰버그는 crise climatique라는 이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UNITEX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각 이름들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 중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를 UNITEX의 [!DIC]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사람의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들이 추출된다. 이 중 실제 사람 이름을 지칭하는 경우만 추려보면, urgence climatique과 dérèglement climatique의 경우, 주로 프랑스 정치인들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반면, crise climatique의 경우 그레타 툰버그가 매우 높은 빈도로 함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제 3 장 기후 문제 명칭의 어휘 의미

1장에서는 지시대상에 대해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2장에서는 실제 기후 현상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새롭게 등장하고 자리잡아왔는지를 르몽드 말뭉치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선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기후 문제를 지칭하기 위해 기존에는 changement climatique와 réchauffement climatique라는 두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이를 지칭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들, crise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 dérèglement climatique이 등장하였으며, 점차 명칭으로 자리잡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장에서 살펴본 Sablayrolles(2007)의 논의에 따르면, 이미 명칭을 가진 지시대상과 관련해 재명명이 일어날 경우, 이는 기존 명칭이 어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담화적으로 가지는 암시 의미와 일치하지 않을 때, 사회적 인식을 보다 잘 반영하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함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번 3장에서는 기존의 명칭들이 가지는 어휘 의미 및 암시 의미를 분석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명칭들이 어떠한 의미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3.1. 기존 명칭들의 어휘 의미

먼저, 기존에 사용되던 두 가지 명칭인 changement climatique와 réchauffement climatique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3.1.1.에서는 각 명칭에서 핵이 되는 명사인 changement과 réchauffement의 사전적 정의를 종합하여 표시 의미의 의미 자질들을 정리해볼 것이다. 3.1.2.에서는 각 명칭들이 르몽드 기사에 출현한 예를 수집하고, 각 용례들의 공기 관계 술어들을 종합하여 명칭들의 암시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3.1.1. 표시 의미

3.1.1.1. Changement + climatique

Changement climatique의 핵이 되는 명사 changement의 어휘 의미에 대해서 각 사전들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명기하고 있다.

TLFi
1. Fait de rendre plus ou moins différent, de transformer, de modifier.
2. Remplacement, renouvellement, fait de mettre à la place quelque chose de différent mais de même nature ou fonction.

LAROUSSE
1. Action, fait de changer, de modifier quelque chose, passage d'un état à un autre
2. Fait d'être modifié, changé ; modification, transformation
3. Modification profonde, rupture de rythme ; tout ce qui rompt les habitudes, bouleverse l'ordre établi

Le Robert 1. Modification quant à (tel caractère) ; fait de change
2. Fait de ne plus être le même.
3. Fait de quitter une chose pour une autre
4. État de ce qui évolue, se modifie
5. Dispositif permettant de changer

위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 변화]가 changement의 기본적인 어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LAROUSSE에서 제시한 세 번째 의미는 다소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질서/관습/상태를 깨는 전적인 변화]라는 의미가 추가된다.

3.1.1.2. Réchauffement + climatique

Réchauffement climatique의 핵이 되는 명사 réchauffement의 어휘 의미에 대해서 각 사전들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명기하고 있다.

TLFi Action, fait de se réchauffer[49][50], de reprendre de la chaleur, de devenir plus chaud

LAROUSSE Fait de se réchauffer [51][52]

Le Robert Action de réchauffer[53], de se réchauffer[54].

---

49) [TLFi] se réchauffer: Devenir, redevenir chaud.

50) [TLFi] réchauffer: Chauffer ce qui est refroidi ou froid, rendre chaud, plus chaud, procurer à nouveau de la chaleur

51) [LAROUSSE] réchauffer: Chauffer, rendre chaud ou plus chaud ce qui s'est refroidi

52) [LAROUSSE] se réchauffer: devenir plus chaud

53) [Le Robert] réchauffer: Chauffer (ce qui s'est refroidi)

Réchauffement이 어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더 뜨거워지는 행위]인 것으로 통일되어 보인다.

앞선 두 명칭들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두 명칭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공통적 의미로 가지고 있으나, réchauffement은 그 방향성이 더 뜨거워지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changement은 그 방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changement은 기존의 질서를 벗어난 중대한 변화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54) [Le Robert] se réchauffer: devenir plus chaud

3.1.2. 암시 의미

르몽드 말뭉치 내에서 changement climatique와 réchauffement climatique가 가장 많이 공기 관계에 등장한 술어는 다음과 같다.

	changement climatique		réchauffement climatique	
	공기 술어	빈도수	공기 술어	빈도수
1	lutter contre	352	lutter contre	468
2	s'adapter à	107	limiter	145
3	faire face à	71	contribuer à	96
4	combattre	51	contenir	61
5	agir contre	31	combattre	35
6	limiter	28	maintenir	32
7	atténuer	28	s'adapter à	22
8	contribuer à	27	faire face à	22
9	nier	27	agir contre	21
10	ralentir	21	enrayer	21

[표 5] 기존 명칭들의 공기 술어

공기 관계에 등장하는 술어들을 대략적인 의미 부류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맞서 싸우다: lutter contre, combattre
- 줄이다/완화하다: atténuer, ralentir, limiter, contenir, maintenir, enrayer
- 적응하다: s'adapter à
- 대항하여 행동하다: agir contre

- 대응하다: faire face à
- 기여하다: contribuer à

위 술어들 중 대부분은 changement과 réchauffement의 어휘 의미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술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줄이다/완화하다'라는 의미는 [변화]의 의미자질의 정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각 어휘들에 대한 적정 술어라고 볼 수 있다. '적응하다'의 의미 역시 [변화]의 결과와 관련된 술어로 어휘 의미와 대응한다. '반하여 행동하다', '대응하다', '기여하다'의 의미는 [변화]라는 의미 자질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논항에 대한 선택 제약이 있는 서술어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된 술어가 포함된 '맞서 싸우다'라는 술어는 특정한 의미 자질을 요구하는 술어로 판단해볼 수 있다. 이 의미를 가진 동사는 lutter contre와 combattre인데, 이 중 combattre는 특히 사전적 정의상에도 논항에 대한 선택 제약이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맞서 싸우다'라는 술어는 논항으로 오는 명사 어휘에 [싸움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lutter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두 적 사이의 싸움이라는 뜻의 lutte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려하면, lutter contre가 목적어 논항에 요구하는 기본적인 의미 자질은 [적ennemi]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자질은 combattre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적]이라는 의미 자질은 기본적으로 어휘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인 암시 의미를 부여해주게 된다.

이 때, 부여되는 [적]이라는 의미자질을 보다 구체화해주는 설명을 combattre의 사전적 정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Le Petit Robert에서 제시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Combattre: Aller contre, s'efforcer d'arrêter (un mal, un danger)

이를 통해 combattre가 논항에 요구하는 의미자질은 단순히 부정적 어휘, [적]이 될 수 있는 어휘일 뿐만 아니라 [악, 위험, 혹은 장애물]이라는

의미 자질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 때 흥미로운 점은, changement climatique와 réchauffement climatique의 부정적 암시 의미를 실현시키는 술어인 lutter contre가 가장 많은 빈도로 공기 관계에 출현한 술어라는 점이다. 표시 의미로 실현되지 않는 의미가 암시 의미로 자주 실현될 때, 이는 재명명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2. 새로운 명칭들의 어휘 의미

3.2.1. 표시 의미

3.2.1.1. Dérèglement + climatique

Dérèglement climatique의 핵이 되는 명사 dérèglement의 어휘 의미에 대해서 각 사전들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명기하고 있다.

TLFi Dérèglement: État de ce qui ne fonctionne pas de façon normale. Action de s'écarter des règles (de la morale, du savoir-vivre, etc.)

LAROUSSE Dérèglement: Fait de se dérégler, d'être déréglé
-> dérégler: Faire que (qqch.) ne soit plus réglé. mettre en désordre.

Le Robert Dérèglement: État de ce qui est déréglé, irrégulier, désordonné, qui ne fonctionne plus régulièrement ; détraquement

Dérèglement의 의미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정상 상태로부터의 이탈한 이상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존 명칭들이 가진 [변화]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변화가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다.

3.2.1.2. Urgence +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의 핵이 되는 명사 urgence의 어휘 의미에 대해서 각 사전들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명기하고 있다.

Urgence: Caractère de ce qui est urgent, de ce qui requiert une action, une décision immédiate (TLFi)

Urgence: Caractère de ce qui est urgent. Nécessité d'agir vite. (LAROUSSE)

Urgence: Caractère de ce qui est urgent, de ce qui ne souffre aucun retard. Nécessité d'agir vite (Le Robert)

Urgence의 경우, [변화]의 의미는 부재하며, 어휘적으로는 [행동/결정의 필요성], [긴급함]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1.3. Crise + climatique

Crise climatique의 핵이 되는 명사 crise의 어휘 의미에 대해서 각 사전들은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명기하고 있다.

Crise: Situation de trouble profond dans laquelle se trouve la société ou un groupe social et laissant craindre ou espérer un changement profond; p. méton., période ainsi caractérisée. (TLFi)

Crise: Phase grave dans une évolution (évènements, idées) (LAROUSSE)

Crise: Moment très difficile dans la vie de quelqu'un, d'un groupe, dans

le déroulement d'une activité, etc. ; période, situation marquée par un trouble profond (Le Robert)

Crise의 경우, 앞서 본 모든 명칭들에 비해 어휘에 담긴 표시 의미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Véniard(2020)은 crise의 의소들을 [문제 상태(rupture)], [기간(période)], [강도(intensité)]의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이에 기반하여, 위의 사전적 정의에도 이 의미 자질들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알아보고, 추가적인 의미 자질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일단 첫째, [문제 상태]는 'trouble', 'difficile'와 같은 어휘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기간] 역시 유효한데, 세 정의에는 각각 'période', 'phase', 'moment'이라는 기간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영구적인 문제가 아닌, 끝을 가진 기간임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강도] 역시 'profond', 'grave' 등의 형용사들을 통해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Crise는 [문제상태rupture], [기간période], [강도intensité]의 세 가지 의미자질을 표시의미로 가지는 명사라고 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새로운 명칭들의 표시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Dérèglement climatique: [문제상태]
- Urgence climatique: [행동/결정의 필요성], [긴급함]
- Crise climatique: [문제상태], [기간], [강도]

흥미로운 것은 dérèglement과 crise에는 [문제상태]의 의미 자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명칭들의 표시의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암시의미로 실현되었던 부정적인 의미 자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기존 명칭에 대한 재명명 유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2. 암시 의미

새로운 명칭들의 공기어들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3회 이상 결합하는 술어들을 출현 빈도 순서로 정리하면, dérèglement climatique는 8개 술어, crise climatique는 10개 술어, urgence climatique는 12개 술어와 함께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urgence climatique		**crise climatique**		**dérèglement climatique**	
Rank	공기어	빈도	공기어	빈도	공기어	빈도
1	répondre à	25	résoudre	20	lutter contre	70
2	faire face à	15	faire face à	14	faire face à	23
3	déclarer	12	répondre à	12	agir contre	15
4	alerter sur	8	lutter contre	9	s'adapter à	9
5	agir face à	6	agir face à / contre	7	contribuer à	7
6	reconnaître	6	alimenter	5	aggraver	5
7	prendre en compte de	5	traiter	5	freiner	4
8	rappeler	5	combattre	4	participer à	3
9	tenir compte de	3	aggraver	3		
10	parler de	3	régler	3		
11	voter	3				
12	crier	3				

[표 6] 새로운 명칭들의 공기 술어

3.2.2.1. Dérèglement + climatique

Dérèglement climatique의 공기어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맞서 싸우다: lutter contre
- 대응하다: faire face à
- 반하여 행동하다: agir contre
- 적응하다: s'adapter à
- 일조하다: contribuer à
- 악화시키다: aggraver
- 억제하다: freiner
- 참여하다

일단, 출현하는 술어들의 목록이나 순서가 기존 명칭들과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장 높은 빈도로 lutter contre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술어인 faire face à의 출현 빈도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changement climatique와 réchauffement climatique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 사실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명칭들 중 유일하게 s'adapter à가 공기 술어로 자주 출현하는 명칭이라는 점이다. 이 술어는 기존 명칭과도 자주 결합하는 서술어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공기 술어라고 볼 수 있다. 즉 changement climatique, réchauffement climatique와 마찬가지로 dérèglement climatique 역시 적응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의미가 crise climatique나 urgence climatique라는 명칭과 함께 실현되지는 않는다.

3.2.2.2. Urgence +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의 공기 술어들을 의미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대응하다: répondre à, faire face à
- 선언하다: déclarer
- 경고하다: alerter sur
- 행동하다: agir face à
- 인지하다/인정하다: reconnaître
- 고려하다: prendre en compte, tenir compte de
- 상기시키다: rappeler
- 말하다: parler de
- 투표하다: voter
- 외치다: crier

Urgence climatique의 공기 술어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발화동사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déclarer, alerter sur, rappeler, parler de, crier 등 결합하는 술어의 상당수가 발화동사에 해당한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déclarer의 경우, 법률적 장르의 특수성이 담긴 동사라고 볼 수 있는데, déclaration (de l'état) d'urgence (긴급사태선언)라는 법률적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 외의 경우에도 주로 기후 현상 자체에 대한 지시보다는 기후와 관련한 담화를 지시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암시 의미는, 앞선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rgence climatique가 2018년 이후에도 인용부호와 함께 자주 등장하던 경향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담화의 주제로 출현할 경우, 현상이 아닌 발화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자기지시적 양태화가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인용의 양태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2.2.3. Crise + climatique

Crise climatique와 함께 등장한 술어들은 의미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해결하다(résoudre, régler)
- 직면하다(faire face à, répondre à, affronter)
- 싸우다(lutter contre, combattre)
- 다루다(traiter, parler de)
- 악화시키다(aggraver), alimenter, souffrir, imputer.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다른 명칭들의 공기 술어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해결하다résoudre/régler'라는 동사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중 résoudre는 가장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술어이기도 하다. Véniard(2020)는 crise climatique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를 나타내는 [crise + ADJ]에서도 résoudre나 régler와 담화적으로 자주 결합하는 양상을 지적한 바 있다. Véniard(2020)은 이러한 술어 결합 양상을 고려하여 crise에 네 번째 의소로 [dont on veut voir le terme]라는 담화적으로 실현되는 의미 자질을 추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crise가 가진 표시 의미인 [기간]과 [문제 상태]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crise는 다른 명칭들과 달리 [기간]이라는 의미 자질을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기간은 시작 시점과 끝 시점을 가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사건성은 Reboul-Touré(2021)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 [변화]의 의미만으로는 '원래 상태로의 회귀'라는 의미를 실현시키지 못하지만, 어휘적으로 [끝terme]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이는 [문제 상태의 '해소']라는 의미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뜻하는 서술어 résoudre, régler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러

운 현상으로 나타난다.

앞서 본 명칭들의 표시 의미와 암시 의미들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명칭인 changement과 réchauffement은 표시 의미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이행]과 [변화]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공기 술어들로 인해 [싸움의 대상], [적], [악]이라는 부정적인 암시 의미를 담화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명칭 중 dérèglement과 crise는 [문제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표시 의미로 이미 가지고 있다.

그 중 dérèglement은 그럼에도 기존 명칭들이 결합하던 s'adapter à라는 술어와 공기 관계에 자주 출현하고 있으며, 공기 관계에 있는 술어들과 그 빈도가 기존 명칭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명칭들과 표시 의미의 차이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urgence climatique는 [변화]의 의미도 상실하였는데, 따라서 다른 명칭들과 달리 발화 동사들과 주로 공기 관계에 나타나며, 담화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rise climatique의 경우, 기존 명칭들과 결합하지 않던 '해결하다'(résoudre, régler)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기간]+[문제상태] 의미 자질로 인해, 문제의 '끝' 혹은 '해소'라는 의미로까지 담화적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 론

지금까지 기후 현상에 대한 이름들을, 명칭과 어휘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각 명칭들의 표시 의미 및 암시 의미를 규명하여 재명명의 원인 및 효과를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changement climatique와 réchauffement climatique라는 명칭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름인 dérèglement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 crise climatique가 명명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각 이름들이 2018년 말 혹은 2019년 이후부터 점차 어휘화되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재명명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명칭들의 표시 의미와 암시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명칭인 changement climatique와 réchauffement climatique의 표시 의미는 담화 속에 등장하는 공기 술어들 중 combattre와 lutter contre가 요구하는 적합한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고, 이러한 의미는 담화적으로 획득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새로운 명칭들 중 dérèglement climatique와 crise climatique는 이러한 술어들의 제약에 부합하는 표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crise climatique의 경우 어휘 의미 자질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결국 해결의 담화로의 새로운 방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 역시 의미있는 발견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이름의 변화 과정을 양적·질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개별 발화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이름의 문제가, 말뭉치의 활용을 통해 보다 넓은 미디어 담화 차원으로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었다. 또한, 신조어 연구를 참조하여, 새로운 사건이나 사물의 출현을 수반하지 않은 이름의 변화, 즉 재명명의 문제 역시 명칭에 대한 연구 흐름에 통합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본 연구는 어휘 차원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담화 분석으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기후 현상을 새롭게 명명하는 행위들은 각 발화

자 및 발화 맥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에도, 이번 연구에서는 그러한 맥락에 대한 고려를 분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새로운 명칭들을 어떤 발화자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흥미로운 후속 담화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범모, 2011,「의미론에서 “의미”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과 번역어」, 『언어와 정보』, 제15권, 한국언어정보학회.

남지순, 2013,「모리스 그로스의 언어처리 모델과 전산학적 적용의 이해」. 『인문언어』, 제15권, 국제언어인문학회.

Bosredon, B. & Tamba, I., 1992, « Thème et titre de presse: les formules bisegmentales articulées par un «deux points» ». *L'Information grammaticale*, 54(1), 36-44.

Calabrese Stemberg, L., 2012, « L’acte de nommer: nouvelles perspectives pour le discours médiatique », *Langage et société, 140,* 29-40.

Charaudeau, P., 1983, *Langage et discours. Éléments de sémio-linguistique*, Paris: Hachette-Université.

Courtine, J.J., 1981, « Quelques problèmes théoriques et méthodologiques en analyse du discours, à propos du discours communiste adressé aux chrétiens », *Langages*, *62*, 9-128.

DUFOUR, F. & ROSIER, L., 2012, « Introduction. Héritages et reconfigurations conceptuelles de l'analyse du discours « à la française » : perte ou profit ? », *Langage et société, 140*, 5-13.

Frath, P., 2014, « La conception de la dénomination chez Georges Kleiber », *Les théories du sens et de la référence. Hommage à Georges Kleiber,* Éditions et presses universitaires de Reims (Res per nomen), 19-34.

Frath, P., 2015, « Dénomination référentielle, désignation, nomination », *Langue Française*, 188, 19-34.

Gross, G., 1994, « Classes d'objets et description des verbes », *Langages,* 15-30

Kleiber, G., 1984, « Dénomination et relations dénominatives », *Langages*, *76*, 77-94.

Kleiber, G., 2001, « Remarques sur la dénomination ». *Cahiers de praxématique*, *36*, 21-41.

Lecomte, A., 1981, « Comment Einstein raconte comment Newton expliquait la lumière (ou: le rôle de la mémoire interdiscursive dans le processus explicatif », *Revue européenne des sciences sociales, 19*, 69-93.

Maldidier, D., 1993, « L'inquiétude du discours. Un trajet dans l'histoire de l'analyse du discours: le travail de Michel Pêcheux », *Semen* [en ligne], *8.*

Maingueneau, D., 2016. *Analyser les textes de communication.* Armand Colin.

Mejri, S., 2005. « Figement, néologie et renouvellement du

lexique. Linx », *Revue des linguistes de l'université Paris X Nanterre*, *52*, 163-174.

Mortureux, M.F., 2011, « La néologie lexicale: de l'impasse à l'ouverture », *Langages*, *183*, 11-24.

Moirand, S., 2007a. *Les discours de la presse quotidienne. Observer, analyser, comprendre,* Presse Universitaires de France(PUF).

Moirand, S., 2007b. « Discours, mémoires et contextes: à propos du fonctionnement de l'allusion dans la presse », *Corela, HS-6*.

Moirand, S. & Reboul-Touré, S., 2015, « Nommer les événements à l'épreuve des mots et de la construction du discours », *Langue française*, *188*, 105-120.

Nugara, S., 2011, *L'émergence de violence domestique comme rubrique du discours institutionnel: le cas du Conseil de l'Europe*, thèse de doctorat, Paris 3.

Petit, G., 2001, « Pour une conception lexicologique de la dénomination », *Cahiers de praxématique*, *36*, 93-115.

Raus, R., 2019, « Partage des savoirs et influence culturelle: l'analyse du discours «à la française» hors de France », *ESSAIS FRANCOPHONES, 6,* 1-187.

Reboul-Touré, S., 2021, « The Crisis in Discourse: As an Event, a

Discursive Semantics, and a Culture »,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51*, 399-420.

Sablayrolles, J.F., 2000. *La néologie en français contemporain: Examen du concept et analyse de productions néologique récentes*. Paris: Honoré Champion.

Sablayrolles, J.F., 2007, « Nomination, dénomination et néologie: intersection et différences symétriques », *Neologica: revue internationale de la néologie*, *1*, 87-99.

Siblot, P., 1997, « Nomination et production de sens: le praxème », *Langages*, 38-55.

Siblot, P., 2001. « De la dénomination à la nomination. Les dynamiques de la signifiance nominale et le propre du nom » *Cahiers de praxématique*, *36*, 189-214.

Résumé

Analyse de discours climatique français : dénomination et son sens lexical

KIM Ho Won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ette étude a pour but de décrire le changement de nom des phénomènes climatiques et de montrer également le changement des sens lexicaux, correspondant aux besoins du peuple.

Pour ce faire, tout d'abord, nous examinons les études existantes sur la dénomination, et montrons le processus par lequel un nom est attribué à un référent et puis accepté par le public. Sur cette base, nous justifions la nécessité d'une étude sur la possibilité d'étendre la théorie de la dénomination et de l'appliquer aux noms des choses déjà existantes ainsi que des nouveautés. De plus, en se référant aux études de la néologie, nous présentons les critères des noms stabilisés comme dénomination.

Ensuite, nous construisons un corpus médiatique du Monde avec des articles traitant le sujet de climat, et analysons les

concordances des différents noms désignant les phénomènes climatiques. Selon les critères élaborés, nous décrivons la création et l'acceptation de chaque nom utilisé dans les médias français. Par ces travaux, nous observons l'émergence de trois nouveaux nom(dérèglement climatique, urgence climatique, crise), et leur acceptation progressive au fil du temps, en plus des deux noms déjà existants(changement climatique, réchauffement climatique).

Enfin, nous examinons le sens lexical de chaque nom et faisons une analyse comparative de différents noms en nous basant sur les dictionnaires et le corpus. Une telle comparaison nous permet d'identifier le changement de la signification dans le discours climatique et finalement de révéler la nécessité de renommer le référent de phénomène climatique.

keywords : discours médiatique, analyse de discours, dénomination, discours climatique, sens lexical

Student Number : 2020-25616